



테헤란밸리 新풍속도

채승기

일간 네트워크컴퓨팅 기자 / cksa@e-times.co.kr

현재 '일간 네트워크컴퓨팅'에서 유무선통신, DBMS, 솔루션, 전자상거래 등을 맡고 있다. 관심분야는 전자상거래. 아직까지 아는게 별로 없어서 공부하려고 노력중이다. 취미라면 여행인데 자주는 못 가고 있다. 올 여름에는 조용한 곳에 다녀올 생각인데...

테헤란밸리, 노동조합이 뜬다 목인돼오던 노동조건 등 이의제기 잇따를 듯

지난 7일의 언론 보도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한 이 사건은 다름아닌 벤처기업의 노동쟁의의 임박을 알리는 보도. 비록 극적인 타결로 쟁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테헤란밸리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벤처기업 첫 단협 체결...

-한겨레신문 2000. 5. 7.

벤처기업 최초로 노동쟁의를 앞두고 있던 (주)멀티데이터시스템 노사가 6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열린 11차 단체교섭에서 쟁점이었던 대졸준필 연봉 1,500만원 보장,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월차·야근 수당 지급, 회사의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 철회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조위원장 등 2명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휴직자 중 병가 사용자 임금 지급, 회사 경영 변동 때 조합과 합의, 유급 교육휴가 실시, 휴계실과 숙직실 등 복지후생 시설 개선, 교육비 보장 등 노조활동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지난 2월12일 벤처기업 최초로 설립한 (주)멀티 노조(위원장 이상호)는 10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4월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으로 '대박'이라는 장미빛 꿈을 담보로 극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에 시달려온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삶이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했다"며 "앞으로 벤처 노동자들의 실패를 조사해 발표하고, 다른 벤처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테헤란밸리의 상징처럼 여겨져오던 '꺼지지 않는 불', 꿈을 쫓는 사람들의 '자발적 희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치외법권' 적 벤처기업 노동강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최근 새로운 화두를 형성하고 있다.

한동안 자랑처럼 얘기하던 벤처기업의 노동강도는,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것만 빼면 노동착취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비록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벤처기업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인력난 등으로 사주들이 우리사주와 같은 지분참여는 지양하는 추세여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역특례요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테헤란밸리의 '이발소'와 신흥재벌로 떠오른 벤처기업가들 이야기는 이같은 단상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데 공헌한다. 이같은 언론조명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벤처기업 내부에 문제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내부의 모습은 당장의 현실로 나타난다. 테헤란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는 차



“
 지난 7일의 언론 보도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한 이 사건은
 다름아닌 벤처기업의 노동쟁의의 임박을 알리는 보도.
 비록 극적인 타결로 쟁의로까지 이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테헤란밸리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

테헤란 Dream의 실체는 우리에게 점점더 현실로 다가와...

병원, 동국대 한방병원, 성심병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병원에는 요즘 들어 부쩍 벤처인들의 방문이 잦다. 새로운 바이오 관련기술 얘기가 아니다. 단기간 급성장이라는 정보통신업계 중심의 벤처신화는 노동시간 준수, 안정된 복지혜택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화의 주인공들은 요즘 들어 과로와 불규칙한 업무환경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견디고 있을 뿐이다. 왜? 바쁘니까... 아플 시간도 없다.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의 '성공'은 향후 벤처기업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실시할 예정인 실태조사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적되어온 테헤란밸리의 비즈니스적 측면에서의 인프라 부족이 벤처기업을 곤란하게 했다면, 향후에는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업 내부의 인프라 부족도 많은 부분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긴장도 풀리고, 이제 쓰러질 때도 됐다. 사실 나도 병원에는 못 가지만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 역삼동 L사의 W팀장의 말이다. 테헤란밸리의 1천5백여 기업 중에 환자가 없는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의문이다.

수년전 언론은 한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상위권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에 불어닥친 벤처열풍이 40대에서 30대로 과로사망연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을 듯 싶다. 성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테헤란밸리의 '訃告(부고)'는 현실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키는데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만 발표해왔을뿐,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이 이뤄지는 기업은 손으로 꼽아볼 정도이다. 물론 장기적인 전망 속에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한다는 것이 벤처문화이지만...

요즘 테헤란밸리의 화두는 단연 '수익모델' 찾기이다. 궁극에 살아남을 기업은 수익모델을 찾은 기업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쓰러져가는 직원들은 현 체제에서는 마땅히 보상받을 길이 없다. 멀티데이터시스템 사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모두가 묵인하고 인정해왔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벤처기업 특유의 문화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직원들에 대해 한번쯤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하는 편이 낫겠다. **KCRC**

